

KC NEWSLETTER

VOL. 51



올해의 기계인상 수상



환경 설비 50년

‘2013 기계의 날’행사가 지난 13일 서울 웨라톤 디큐브시티에서 정부, 국회, 업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로 12회를 맞이하는 금번 행사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및 총 5개기관이 공동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였다.

올해는 엔저 등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기계산업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해온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2014년 재도약을 위한 화학을 다짐하는 등 기계산업인 결의를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이달우 회장이 올해의 기계인상을 수상하여 더욱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올해의 기계인상은 우리나라의 기계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세우고 기계 분야에서 존경받는 인물을 발굴하여 기계인의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의 기계인상 수상을 통해 지난 50여 년간 국내 기계산업 발전과 환경설비 국산화에 기여한 이달우 회장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또한, 저녁 만찬 행사에서 이달우 회장은 전 기계인들을 대신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기계인의 기상을 보여주자는 건배사를 하였다.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업계의 많은 참가자들이 이 날 올해의



건배사를 하는 이달우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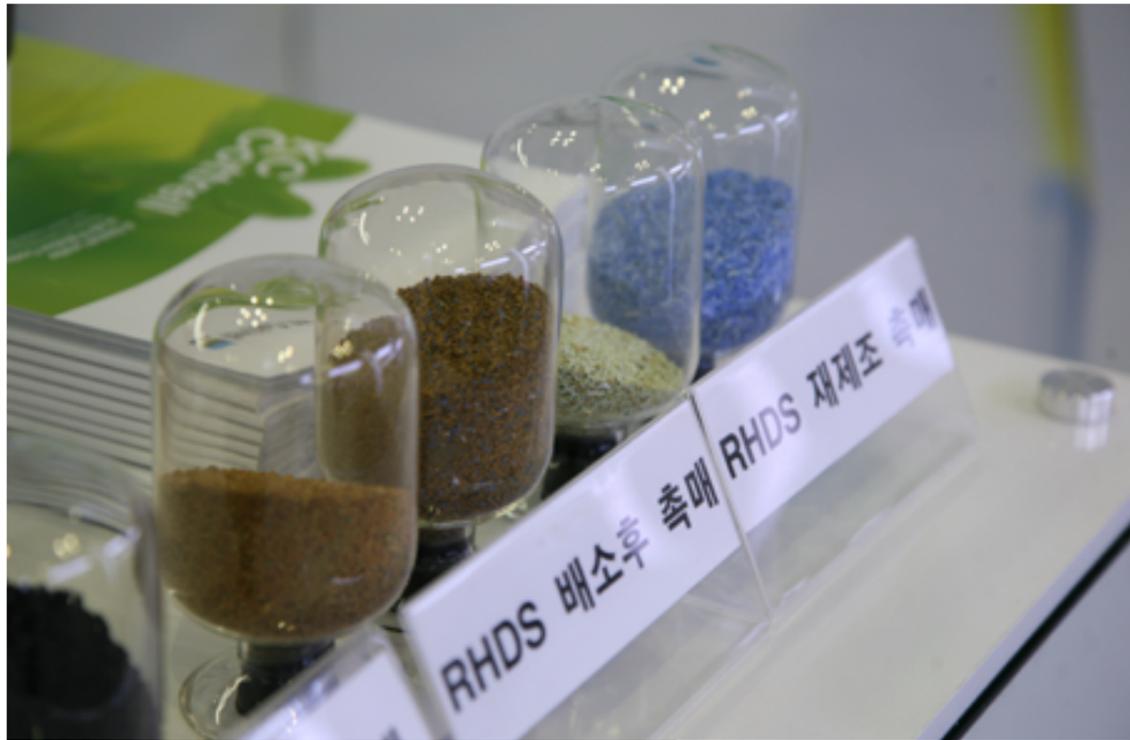
기계인상을 수상한 이달우 회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으며, KC코트렐을 대표하여 임창호 상무가 시상식에 참가하여 이달우 회장의 올해의 기계인상 수상을 더욱 뜻 깊은 자리로 만들었다.



기계의 날 행사에 참가한 임창호 상무, 이달우 회장과 임창호 상무는 KC코트렐의 전신 한국코트렐 시절부터 많은 일을 함께 해 왔다.

KC 코트렐

기술연구소 2013 대한민국 R&D 대전 참가



KC코트렐의 미래를 만드는 기술연구소

2013 대한민국 R&D대전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일산 KINTEX 제1전시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주최하여 R&D 과제에 대한 소통 및 평가의 장으로 활용, R&D 성과에 대한 대(對)국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산, 학, 연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정보 공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열린 행사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 R&D 투자액 17



조 1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8조 9000억원을 쓰는 두 부처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임과 동시에 국내 201개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550개 부스)해 신산업, 주력산업, 정보통신, 소재부품, 디자인, 생활 분야 등 1,545개의 기술을 선보였다.

금번 전시회에서 KC코트렐을 대표하여 기술연구소가 촉매 재제조를 전시회에 선보였다. 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촉매재제조는 국내 정유공장에서 연간 약 23,000톤 정도로 발생하는 탈황 촉매 대부분이 유가급속 회수 혹은 배소 후 해외 수출되는 상황이라 자원 및 외화 낭비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재 사용할 수 있도록 촉매를 재제조하여 재이용하는 기술이다. 촉매재제조 외에도 지하철 터널 내 전기집진기, 10MW 연소 후, 건식 CO2 포집 플랜트 등 기술연구소에서 그간 진행한 연구과제들을 선보이는 뜻 깊은 자리였다.

KC코트렐의 부스, 기술연구소의 그 동안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뜻 깊은 자리였다.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사업 협약 체결

사회적 기업 자생력 높이기에 적극 나서.....

KC글라스는 2013년 10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1사 1 사회적기업 결연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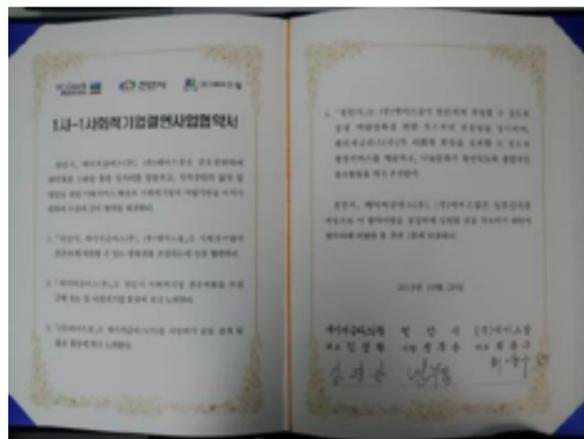
천안시와 9개 결연기업·단체 그리고 9개 사회적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1사 1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업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사회적기업이 튼튼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며,
2. 천안시 사회적기업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등 사회적기업 후원에 적극 노력하고
3.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역사랑 나눔 문화에 적극 참여한다.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KC글라스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지역사랑 나눔 실천

2013년 10월 19일 KC글라스 임직원 13명은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입장면 도림리 독거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랑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임직원들은 농가주택 내·외부 청소, 노후 전기시설 보수(스위치 및 등기구 교체) 등 안전점검과 시설개선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뜻 깊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C글라스는 지역사회의 고민을 함께 나눈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산업 발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평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상 수상**

KC 글라스는 ‘산업발전부문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의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10월 17일 ‘에너지 관리공단 이사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KC 글라스 창조경영 연구소 배정찬 차장은 에너지 절약과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로 정했으며, 이를 위해 2015년에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 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 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이 시행 되었으며 KC 글라스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관리업체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에너지 저감활동을 통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거래하는 제도로 KC 글라스는 폐열 회수, 고효율 설비도입, 청정연료(LNG) 전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온실 가스배출량을 감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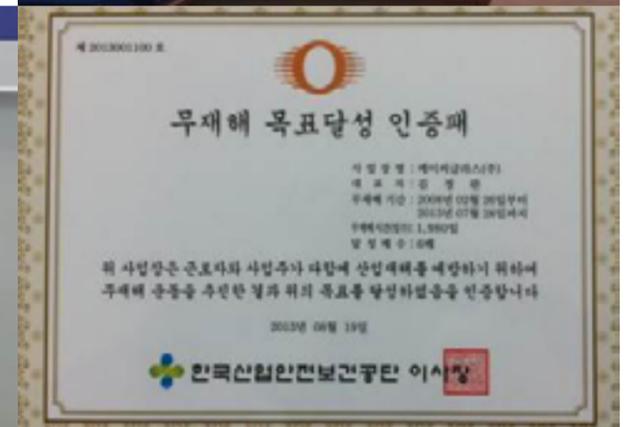
KC 글라스는 친환경 녹색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신기술 개발 등 녹색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입니다.

‘무재해 6배수 목표달성 인증’

KC 글라스는 2013년 10월 17일 안전보건공단 주관 ‘무재해 인증서’ 수여식에서 ‘무재해 6배수 목표달성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무재해 6배수 달성은 대표이사의 안전.환경.보건에 대한 경영의지와 방침, 그리고 꾸준하고 적극적인 안전 관리로 모든 작업에 적용된 안전시스템의 운영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무재해 인증서’ 수여와 함께 KC글라스 황효식 대리는 안전.환경.보건 활동에 노력한 공로로 ‘무재해 유공사원’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정완 대표이사는 무재해 6배수 달성과 무재해 유공사원 표창을 축하하며 ‘안전은 개인의 행복이나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우선하여야 하는 가치’이므로 지속적으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KC 글라스



‘광동제약(주) 창립50주년 감사패 수령’

KC글라스는 2013년 10월 16일 광동제약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광동제약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주요 협력업체로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날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창립50주년 기념사를 통해 “광동의 지난 50년은 100년 기업을 향한 도약의 기반이자 확신의 기간이었다”면서 의미를 부여한 뒤 “새로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것이 앞으로 100년을 향한 광동의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광동제약 전 임직원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KC 글라스



‘부안 변산반도’ 가을야유회

KC글라스는 지난 10월 10일, 14일, 23일 3차에 걸쳐 부안 변산반도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KC글라스 임직원들은 전나무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반짝이는 햇살, 꽃살문과 백의관음 후불벽화가 아름다운 내소사, 채석강에서 바라보는 바다의 일몰 등을 감상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가졌고, 한편으로 직원들간 소통의 장으로서의 의미도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태양광 발전설비(3MW)준공



지난 10월 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세르지오 호샤 한국지엠 사장, 마크 코모 판매·AS 마케팅부문 부사장 등 한국지엠 임직원과 KC솔라에너지 강태일 전무, 박완수 창원시장,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 이원석 창원문성대학 총장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엠 창원공장 태양광발전설비(3MW) 준공식 행사가 열렸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태양광 발전설비는 KC솔라에너지(주), 한국남부발전(주), 광명전기(주), 신성솔라에너지(주)가 공동투자하여 설립한 KS솔라(주)가 발주자가 되어, KC솔라에너지(주)가 시공을 한 태양광 발전소로, 2012년 말 사업추진 협약식을 가진데 이어 올해 8월 공사에 착수, 10월말 가동을 시작하였다.

이는 3만8400㎡ 면적의 조립공장 건물 지붕에 구축된 3MW급 발전 시설로, 추후 차체 공장에 3.5M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총 6.5MW급 설비로 준공 예정이다.

이번 준공으로 지난해 르노삼성자동차 태양광발전소(20MW)에 이어 한국지엠과도 협력관계를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내 대형 자동차 공장 두 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국내 유일의 실적을 KC솔라에너지(주)가 보유하게 되었다는데 그 의미를 가진다.



2013 소방훈련 실시

2013년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KCMS직원 및 각 협력업체 대표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발생시 초기 화재진압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방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화재발생과 동시에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 화재 진압으로 소방훈련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방호스 연결과정 및 소화전 개방하는데 미숙함이 발견되었고 훈련 중 발생된 문제점에 대하여 강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겨울철에 화재가 많이 발생됨으로 평상시 소화기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하여 화재에 대비하여야 겠습니다.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